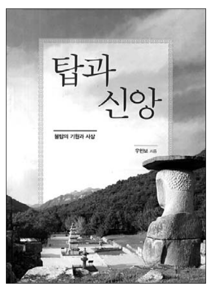
“불탑신앙은 과거불과 석존 당시도 있어”



탑과 신앙

우인보 지음
해조음 펴냄
1만3천원

불탑조성의 기원과 변천을 신앙적인 관점과 경전에 근거해 조명한 책으로 그 동안 미술사와 건축사의 입장에서 연구된 불탑 관련 도서와는 달리 경전에 근거한 개론서라고 할 수 있다.

불탑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석가모니부처님의 무덤이다. 불탑은 불교 의례에 있어 찬탄과 보호의 의미를 포괄하며, 불자들에게는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의 상징으로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다. 불탑에 예경하면 현세와 내세에 무한한 공덕과 복을 얻을 수 있고, 불탑을 조영(造營)하는 자체로도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에 수많은 곳에서, 또 여러 시대에 걸쳐 불탑이 세워질 수 있었다.

이처럼 초기의 불탑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홍포의 기능과 함께 신앙의례의 장소를 겸하여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교 교리를 불탑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상징적인 표현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경설에 근거한 조형물로서의 가치를 불탑은 반드시 지녀야만 하는 근거가 됐다.

불탑은 역사적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열반과 함께 조성되었지만, 여러 경전에는 부처님 재세 당시와 과거불의 불탑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책에서는 불탑 조성의 기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불탑이 다양한 양식과 형식으로 조성되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신앙된 데에는 그 동기를 이루는 사상적 배경이 석가모니부처님의 말씀을 다룬 경전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불교교리의 발달과 전개사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불탑의 통시적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 열반 직후 전륜성왕 장례법에 따라 불탑이 조성된 사실과 사리팔분의 내용 등은 전하는 경전마다 내용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어떻게 불탑을 의미하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는가를 구체적인 용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또한 불탑의 종류와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통상목탑, 전탑, 석탑 등의 재료로 분류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신앙인의 자세로 불탑을 이해하고자 했다. 또 탑돌이 의식와 그 공덕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경전에 근거하여 조명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불탑 관련 문헌들을 총망라하여 부록으로 실어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불탑이 조성되고 신앙되는 사상적 배경과, 불교 경전과 경설에 근거한 이해는 불탑을 통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불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탑의 연구의 방향과 지금까지의 내용에 더하여 경전에 근거한 도상적 파악으로 불교의 사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 불교학계에서는 대승불교운동의 흥기와 함께 재가불자들에 의해서 불탑신앙이 일어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불탑의 기원을 고찰한 바와 같이 한역된 경전의 내용에 의하면 불탑신앙은 과거불과 특히 석존 재세 당시에도 탑이 조성되고 신앙되었음을 새롭게 알 수 있다.

통도사 봉발탑은 가섭존자가 석가모니부처님의 가사와 발우를 가지고 계족산에서 미륵불을 기다린다는 미륵신앙에서 유래하며, 그 때 전해질 발우다.

미술사와 건축사 입장 아닌
경전에 근거해 불탑신앙 조명
신앙인의 자세로 불탑 이해

또한 초기경전에서 불탑 조성의 위치가 불교신도들이 쉽게 예경할 수 있는 사거리에 세우도록 부처님은 예언했고, 출가자는 수행에만 전념하고 재가불자가 불탑을 관리하는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불탑의 기원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새롭게 알 수 있다.

첫째, 초기경전에 나타난 불탑관은 매우 사실적이며, 전통의 장례에 따라 불탑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둘째, 과거불과 석가모니불, 과거불과 대승경전에 보이는 다양한 부처님을 연결 지어 불탑신앙을 묘사하는 것은 사상적 정통성 내지 역사성의 답보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셋째, 대승경전의 등장은 초기 불전과 달리 매우 신화적이고, 신앙에 입각한 불탑신앙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승불교 운동의 다양한 목적 속에서 불탑신앙은 그 활용의 폭을 넓히게 된다는 점과 전통 신화나 다양한 보살을 등장시켜 불탑신앙을 장엄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인도, 중국, 한국의 불탑신앙의 역사적 전개를 고찰함에 있어서 각국이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범주 안에서 특색 있게 변천했지만 공통적으로 경설에 입각하여 불교의 근본사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불탑신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책은 앞으로의 과제로 이번 연구에서 불탑신앙의 기원과 그 역사적 변천의 과정을 한역경전을 중심으로 고찰했지만 앞으로 불탑을 연구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와 함께 전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불탑의 양식과 형식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불탑사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불교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탑의 특성을 논하는 것은 편견에 빠질 수 있으므로 불탑사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누구나 아는 소동파, 아무도 모르는 소동파 전기

소동파 평전

왕수이자오 지음 | 조규백 옮김
돌베개 펴냄 | 2만원

“누구나 소동파를 알지만 아무도 소동파를 모른다.”

이는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만큼 제대로 알기는 어려움을 토로한 말이다. 중국의 문호 소동파(1306~1101)의 삶과 문학이다. 책은 소동파 연구에 있어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중국 푸단대학의 왕수이자오 교수가 쓴 소동파의 전기이다. 또한 소동파의 방대한 시문집이 녹아 있어 ‘소동파 입문서’로서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소동파 평전 중에서는 3종의 책을 꼽을 수 있는데, 린위탕(林語堂)의 〈쾌활한 천재-소동파 평전〉(2001), 유종목(柳種睦)의 〈팔방미인 소동파〉(2005), 그리고 이 책이다.

중국 문필가(린위탕)의 책과 한국 전문학자(유종목)의 책에 이어, 이제 중국 소동파 연구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의 왕수이자오 교수의 깊이 있는 해설과 감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다.

소동파(蘇東坡, 본명 소식蘇軾 · 1036~1101)는 중국 북송(北宋)대의 정치가 · 행정가 · 경학자(經學者) · 예술가로 유명하며, 또한 의약 · 요리 · 고고학 등에도 공헌이 있는 중국 역대의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중국문학사상 소동파만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다채로운 삶을 살아온 문인은 드물다.

정치가 소동파는 신법당과 충돌했고, 지방 관리로서 민중을 위한 삶을 살았으며, 지적 호기심과 탐구욕이 왕성해 새로운 곳을 좋아하는 동적인 인생을 영위했다. 평생토록 자연 속에서 여행하고 소요하기를 좋아했다. 또한 차와 술을 좋아해, 그 흥취를 시나 수필로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술을 좋아해 예술가들을 사귀며 배우고,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보탰을 뿐만 아니라, 서법(書法)과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힘과 미(美)를 표현하여 예술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소동파는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문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그의 책 〈동인시화(東人詩話)〉에 다음 기록을 남겼다.

‘고려 문인은 오로지 동파를 숭상하여, 과거 급제자의 방이 나붙을 때마다, 사람들이 말하길, “33인의 동파가 나왔구나.”라고 하였다.’

고려의 문인들은 과거 급제 전에는 과거시험 준비로 풍월을 일삼을 겨를이 없다가, 과거 합격 후에 부담없이 시 짓기를 배우는데, 그 가운데 소동파의 시를 가장 좋아했다는 의미이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에서는 소동파는 물론 소동파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만큼 중국은 예로부터 정치와 문학의 관계가 밀접했다. 책은 문혁의 시기를 거친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안목으로 집필된 책이다. 소동파의 시집과 문집은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고래(古來)의 방대한 문학 · 사학 · 철학의 지식, 그리고 유불도의 사상이 녹아 있어, 전문학자라도 완독하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 독자들은 더더욱 접근하기 어렵다.

다양한 취미 다채로운 삶
고려 · 조선 문인에 큰 영향
어려운 ‘소동파’ 쉽게 설명

이번 책의 객관적인 서술은 소동파와 그의 문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적은 분량에도 소동파의 주요한 시나 산문을 빠짐없이 인용하여 소동파를 잘 모르는 독자라도 일독하면 핵심을 터득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꾸몄다. 동시에 쉽고 간결한 문체로 한 문인의 내면적 고뇌와 환희 그리고 정신세계의 핵심까지 잘 파악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소동파의 호방하면서도 섬세하고, 감상적이면서도 이지적인 인간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소동파의 생애의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 그 시대적 · 가정적 · 사상적 배경을 중시하며, 그의 인생과 문학세계를 조명했다. 또한 학문적 관점에서 13장 ‘소동파의 문학적 성취와 그 특징’, 14장 ‘소동파 문학이 후세에 미친 영향’을 설파하고 있다. 부록으로 원서에는 없는 ‘소동파 연보’와 ‘소동파 관직 이동표’, ‘소동파 시, 산문 작품명 찾아보기’를 두어 우리나라 독자들이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했다.

박재완 기자

詩를 빌려 깨달음을 읊다

선시

석지현 엮음 · 옮김 | 현암사 | 2만3천원

“구름은 피어 온 산이 새벽이요 / 바람은 높아 나무마다 가을이네 / 나그네 성 아래 머무나니 / 물결이 고기잡이 뱃전을 두드리네.” -구름은 피어 · 매월 김시습-

시를 빌려 깨달음의 경지를 읊은 ‘선시(禪詩)’다. ‘선시’라는 말은 1975년에 〈선시〉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38년 전에 출간되었던 〈선시〉의 전면 개정판이다.

달마로부터 시작한 ‘선(禪)’은 원래 불립문자를 주장했기 때문에 언어 사용을 극도로 절제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선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선승들은 언어 표현의 수단으로 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수, 혜능에 이르러 선이 꽃을 피우고 최초의 선시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선시의 출현은 신수와 혜능의 개오시(開悟詩)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 뒤를 이어 영가현각(665~713)이 ‘증도가(證道歌)’를 남겼다. 증도가는 깨달음의 기쁨을 참지 못해 단 하룻밤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 장편시다. 이 뒤를 이어 석두 회천의 ‘참동계’가 나왔다. 선승들이 시를 빌려 자신의 심정을 읊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들 사이에서도 시의 정취를 심화시키기 위해 선에 접근하는 풍조가 일기 시작했다. 그 최초의 시인이 왕유(669~761)다. 왕유는 선의 체험을 그대로 시화(詩化)한 시인으로, 후세에 선시의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왕유에 이어 맹호연, 이백, 두보, 장계 등 성당(盛唐)의 제1급시인들이 다투어 선에 접근하면서 당시(唐詩)라 일컬어지는 불후의 명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선은 신라의 법랑이 처음 전하고,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의해서 정착한다. 그리고 그의 제자 진각혜심(1178~1234)에 이르러 본격적인 선시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눌, 진각을 거쳐 원감국사 충지(1226~1292)가 맥을 이었다. 고려 말이 되어 백운경한(1320~1376), 태고보우(1301~1382), 나옹혜근(1320~1376) 등에 의해서 순수한 임제선이 도입, 본격적인 선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책에는 384편의 선시를 18개의 장의 시상(詩想)으로 나누어 담았다. 각 장 제목과 시제만 보아도 어떤 시정을 노래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새로 바꾼 부분이 많다. 우선 선시는 장 분류는 시상이 서로 닮은 시들끼리 묶었던 기존 방법을 그대로 따랐지만, 이번 개정판에서 새로 엮거나 뺀 시상이 많다. 일본 선시를 많이 추가했다. 그리고 한글 세대를 위해 한문 원시의 ‘시 형식 구분’과 ‘운율평측법 표기’를 삭제하고, 한자에 일일이 한글 음을 달아 보기 쉽도록 했다. 낱말풀이도 알기 쉽고 간단하게 고치고, 원시의 지나친 의역과 잘못된 번역은 모두 새로 고쳤다. 또한 지은이의 명쾌한 해설이 선시의 맛을 더한다. 고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한 것도 있다. 초판 이후 재판에서 빠졌던 경봉선사가 읊은 게송과도 같은 서문과 미당 서정주 선생이 붙인 서문(‘교열을 마치고’)을 다시 찾아 실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365 친절상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불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